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1월21일(셋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383장)	다 함께
*교독문	65번	다 함께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273장)	다 함께
기도		현윤경 집사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337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인 1: 변화된 신분(에베소서 2장 1-10절)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369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01-107편, 사사기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린 사무엘을 기도하여 얻었거니와 또한 뚜렷한 목적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림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는 자기의 수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는 길로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어린 영혼을 인도하여 왔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속에 아기들이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정말 저 세상에, 어처구니없는 저 세상에 내어 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참된 성도의 길에 서 있다면, 주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돌보심속에 자라가는 사무엘을 원할 줄 압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마음을 이끌어 갔듯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중보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된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뜻깊은 마음을 간직함으로 이와 같은 값진 일을 이루어 보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도록 걸으로 볼 때에 많이 애쓴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 많이 애를 쓰며 너무 많이 고통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 일찍이 그들로 하여금 매이도록 이끌어 놓았다면, 사무엘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갔듯이, 부모님은 지금은 그 열매를 보며 기뻐할 때일 줄 압니다.

손안에 있을 짙막한 시간 내에 이 귀중한 일을 위해서 마음 쓰며 기도하며 이루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남은 많은 시간은 도리어 주님의 은혜로움에 관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관해서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내게 될 줄 압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영광된 삶

이수민

오래전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던 날,
 이전에 살아온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모릅니다.
 강한 자아와 위선적인 삶으로
 덮여졌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기쁜 마음에
 가슴도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고, 제 안에 계신 주님도
 서서히 멀어져 가고,
 사라진 줄 알았던 자아가
 또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방황하던 저를
 예전에 만났던 주님을
 다시금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손 놓지 않고
 주님 모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제 손 붙잡아 주소서!

새로운 삶

최재희(초5)

주님!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새해가 찾아왔네요.
 새해에도
 주님을 온전히 내 맘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유혹들이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언제나 제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삶과
 주님 가운데의 새로운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1월 21일(3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